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대토론회

“자유민주국민 「단합된 힘」 보일 때”

安秉直 '시대정신' 이사장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치국가로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을 대한민국 체제로 끌어들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安 이사장은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력들이 우선 단결함으로써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정치적 압력과 위협이 되도록해 선거에서 집권의 기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安 이사장은 5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 주최로 열린 제 21회 대토론회 '언론과 국익' 제 1부 '대한민국 흐드는 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 세력과 역사 인식의 지체(遲滯)'란 제목의 주제를 발표한 安 이사장은 “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힘은 국민의 단결된 힘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1998년 이래로 10년간 집권세력으로 군림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세력은 지역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어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安 이사장은 “진보단체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살길이며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 논쟁의 최종 목표가 단지 좌파세력의 척결로 그쳐서는 안되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많은 좌파들이 실력은 없이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실력 우선주의



열기로 가득찬 '언론과 국익' 대토론회장.

했다.

'한국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란 주제의 2부 토론에서 尹錫敏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전 규제는 완화되 사후 규제를 실효성있게 보완함으로써 방송미디어의 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게 미디어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면서 “빨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의 위기는 우리 사회에만 국한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진행돼온 현상”이라며 “신문 미디어를 통해 구현되어온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부정 세력 집권기회 없애야 미디어法 개정으로 言論 제자리 찾길

尹 교수는 “방송,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은 미디어의 사조직화를 막고 공공성, 공정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성이 큰 미디어로서 절

대적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당연시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金順德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시와 비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國利民福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崔熙助 중부대 초빙교수는 “우리 나라의 신문산업은 포화상태인 현실을 감안, 개별 회사 차원에서 경영이 어렵다면 새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퇴출하는 게 마땅한 순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趙昌化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주장과 행동이 다른 '인지부조화(認知不調化)' 세력이 모처럼 기반을 잡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며 “이들이 만약 모르고 그런다면 계도를 하고, 알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언론과 국익' 대토론회 개최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K]

제 21회 대토론회 '언론과 국익' 개요

제 1주제

주 제 : '대한민국 흐드는 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

발 표 : 安秉直(서울대 명예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장)

토 론 : 변희재('실크로드CEO포럼' 회장)

金 哲(전 조선일보 국제부장·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

제 2주제

주 제 : '한국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발 표 : 尹錫敏(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 론 : 金順德(동아일보 논설위원)

崔熙助(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중부대 신방과 초빙교수)

사 회 : 文明浩(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때 : 2009년 5월 19일

곳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토론 총정리 : 崔熙助 본보 편집위원

사 진 : 李保吉 본보 편집위원

로 나간다면 현재의 좌파세력도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 哲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

는 “李明博 정부는 과거 집권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10년간의 각종 정책 등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대토론 제1주제 : 대한민국 흐드는 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압력 병행 「혁명幻想」 벗겨야

지금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본래 추구했던 것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 무엇이란 혁명(참여민주주의로 표현되었다), 反美·反日 및 김정일과의 통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민주화란 포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혁명에의 꿈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제국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혁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혁명이냐고 물으면 이리저리 둘러대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반자본주의인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 自主·自立·自衛라는 명분이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정치적 명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든 자주든 전혀 비현실적인 헛된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은 세계 및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의 한국 진보세력도 內在的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근대화의 길이라 믿는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저개발국의 자본주의화는 모두 캐치 업(catching up)과정을 걸었다.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나 舊공산권의 개혁 개방 정책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처럼 믿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선발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자생적·자립적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다. 그러나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 모범적인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내재적 발전론은 저개발국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론이다. 내재적 발전의 논리를 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내재적 발전의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몰락과 구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 개방이 이를 웅변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은 진실로 1953년의 韓·美 동맹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막강했지만 한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만약 韓·미동맹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건국과 산업화도 국제협력 노선 하에서 달성한 것이며 자주노선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캐치 업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고찰하게 되면, 그것은 저개발국의 근대화 과정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것이었다. 캐치 업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진행된다. 첫째 선발국에 지금까지 후발국이 이용하지 않은 선진적 제도와 기술이 고도로 축적되어 있을 것. 둘째 선발국과 후발국간에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원활할 것. 셋째 후발국이 선발국에 축적되어 있는 선진적 제도와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1964년 중반에 경제발전

개방은 기본적으로 캐치 업 모델인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선발국과의 통상이라는 개방은 캐치 업 모델 성립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오늘날의 한국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인식은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재적 발전이라는 역사인식에 입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현실 인식의 오류는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은 주체의 나라이며, 북한이 주체의 나라인 근거는 그들이 철저한 내재적 발

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은 단순히 계층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한국에서 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일이 그다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정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기본방향은 물론 법치국가로서 우선 법의 엄격한 집행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치국가이면서도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는 최근의 광우병파동이나 국회난동이나 용산참사에서 보는 바이다. 그러면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격한 집행만으로써 가능할 것인가. 불행히도 사태는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제 1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10년간의 집권 여당조차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세력이었다면, 한국이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하더라도 법 집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갑갑한 정치적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을 대한민국 체제로 끌어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

통성을 인정하는 세력들이 우선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결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에게 집권의 기회가 없도록 하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조성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국민통합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통합 과정에는 상대방에 대한 우정에 기초한 관용과 설득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세력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득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서는 각 정치세력이 정치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게 하는 정치적 압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궁극적 힘은 국민들의 단결된 힘일 수밖에 없다. ㉞

近現代史 잘못된 인식한 內在的 발전 주장 엄정한 法 집행으로 體制內로 이끌어야

의 기본방향을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캐치 업 과정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은 캐치 업 이론이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을 통한 고도성장에 의해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개발국의 소망인 국민경제의 자립도 훌륭하게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87년에는 민주화마저 달성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훌륭한 자주독립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캐치 업 과정은 저개발국의 보편적인 근대화 모델일 뿐만 아니라 구공산권의 근대화 모델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공산권 제국의 개혁

전론에 입각하여 외세를 배격하는 데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론으로서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언뜻 보기에 지당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역사적 결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제국에서는 내재적 발전의 계기는 본래 없거나 지극히 미약하다. 내재적 발전에 의해 근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본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정치세력은 크게 보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민주화세력 중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986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설에 합류했지만 민주화세력의 주류는 아직도 대한민국 체제 안으로 수렴돼 있지 않다. 그들은 지금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로서, 1998년 이래로 10년간 집권세력으로 군림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

대토론 제2주제 : 한국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공영 방송의 「私論場化」 심각하다

한국사회의 언론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념적으로 사분오열된 신문, 불공정한 방송, 저급한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인터넷 등은 이처럼 어지러운 언론의 단편들이다. 여기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우리 사회의 언론은 존립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언론의 위기 양상들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미디어 구조 변화의 징후들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소통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사회발전의 문제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상이다.

시민성의 성숙이 없는 개인성과 국가주의, 이른바 압축근대화가 초래한 천민적 자유주의 내지 '싸구려 애국주의(banal patriotism)'의 상태는 진보와 보수, 정치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우리 일상의 상호작용과 소통행위를 관통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의 민주화 선진화 시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올림픽, IMF, 월드컵, 황우석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애국주의적 열정에 들뜬 국민의 모습, 그리고 개인적 욕망과 가족을 앞세우는 이기적 개인의 모습이 두드러질 뿐 그 중간을 채워주는 이웃, 지역, 네트워크, 시민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권위주의를 표방한 진보 정권은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정당한 차이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죄악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켜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시민성을 결여한 이기적 개인·애국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힌 국민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2008년의 촛불시위였다.

우리 사회에서 신문의 미디어적 위상 약화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이준웅과 최영재는 한국의 신문 미디어를 중심으로 위기에 관한 종래의 설명들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가설 차원의 설명이다. 다매체 시대의 신문 독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신문 이용이 줄어든다. 둘째, 신문의 저가치 제공 가설이다. 신문 이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 즉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신문의 공정성 위기 가설이다. 신문이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구독률과 열독률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 나라에서 정치권력 분포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의 이념적 위상은 이러한 변화를

주제 발표

윤 석 민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반영하지 못한 결과 주요 언론의 정치적 입지와 현실의 정치권력 분포가 불일치하게 되어 주요 신문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러한 시비가 언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 한국 언론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의 위기는 최근의 우리 사회에만 국한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되어온, 특히 사회집단·공동체의 약화추세와 긴밀하게 맞물린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신문의 위기는 전근대적 사회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질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파장이 어떠한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방송, PD수첩의 광우병 방송, 그리고 가장 최근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MBC의 보도행태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 사회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흥역과 같은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는 이렇듯 애매하기 짝이 없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라는 한시적 휴전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기일이 지났을 때 이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들 폭발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디어法 개정 事後규제 강화 방향으로 인터넷 표현자유 民主主義 조건 안된다

온 사회적 소통구조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개별화한 통신형 매체와 방송형 매체, 그리고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문 미디어의 위상과 존립 근거는 한층 애매해지는 것이 신문이 겪고 있는 근원적인 위기의 본질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으로 신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신문이 산업적으로 대중,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극복하면서 성숙한 시민공동체에 상응하는 정론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소통영역의 미디어인 방송, 그 중에서도 지상파 공영방송 및 그 종사자들이 왕왕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채 사회적 공론장을 이기적 목적에 따른 선전과 선동이 판치는 사론장(私論場)으로 변

전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가히 인터넷 발전이 초래하는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지구적 실험장이라 할 만하다.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촛불정국과 아고라, 블로그 뉴스, 촛불시위 생방송, 파워블로거, 미네르바, 악성 댓글,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니터링 의무화, 포털 삼진아웃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공간상의 소통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규제 도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최근 급속하게 팽창하는 미디어들은 저품질의 소통행위를 확산시킴으로써 왜곡된 소통구조의 문제를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근본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공동체 성원적 자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질에는 합리성, 절제, 신중함, 사심없는 자세(selflessness), 성찰적 평정, 상호존중, 관용, 공동체의식,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 식견, 평등 등이 포함된다.

단기적으로 사회적 소통과 언론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매체 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소통구조의 중심에 위치한 신문 미디어의 경영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소통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며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바, 정론지가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조성되기까지 신문 미디어를 통해 구현되어온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방송,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은 사회적 소통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회-사회 소통영역을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적 소통의 건강성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미디어의 사조직화를 막고 공공성 공정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1차적인 사회적 소통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당연시하는 주장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특히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과급성이 큰 개인-사회 소통 행위를 매개하는 미디어라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미디어와 언론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미디어나 언론 자체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상위의 가치, 이를테면 민주주의나 인권이며 이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

‘언론과 國益’ 대토론 1·2 주제 지상중계

自主路線만으론 近代국가 못 이룬다

趙昌化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던 시절에 새벽 종이 치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일한 덕분에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 수백만 대가 수출되고 선박이 오대양을 누비고 IT강국이라는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 예전엔 망해봐야 별로 밀질게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성장한 대한민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패배하면 민족공동체 자체가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의 일부 세력은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와 야는 국정의 협의대상이 아니라, 죽기 살기를 벌이는 검투사들 마냥 투쟁에만 열을 올립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선생님과 제자들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가. 본 언론인회는 고민해 봤습니다. 대한언론인회 기관지인 대한언론 5월호에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도 부자를 혐오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反美를 외치는 사람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교조가 기승을 부리는 학교에는 자녀들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전교조에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는 처신을 하면서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살 수 없지만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장과 행동이 다른 걸 ‘認知不調化’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내놓고 얘기하면 자가당착의 세력들이 지금 모처럼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쁜 시간에 모시게 된 안병직 교수님과 윤석민 교수, 그리고 여러 패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고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가 계도를 할 것이고, 알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나이트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文明浩 우선 오늘 제 1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뉴라이트재단의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뉴라이트재단은 뉴라이트 전국연합과는 전혀 별개 단체입니다. 안 교수님은 양드레 말로가 말했던가요, 이 시대의 행



인사말하는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

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의 학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安秉直 우리 나라의 정치세력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세력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산업화를 해온 세력들이었습니다. 여기에 1987년 민주화선언을 쟁취한 민주화세력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았던 민주화세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라든지 사회민주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산업화세력과 손을 잡고 지금과 같은 훌륭히 산업화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됐습니다. 그게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여당, 한나라당이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사회를 보는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 지지하는 정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건 한국 정당에 있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지역세력이거든요. 지역감정이거든요. 이게 한국정당 기반 중에 가장 공고한 기반이라고 인식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역감정을 갖고 나와서 한국 현실을 설명하는게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게 국회의원 당선되는거 한번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는거 한번 보세요, 그게 지역적 기반이지, 뭐 계층적 기반입니까.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기반이거든요. 지역감

지역감정에 기반 둔 政治 세력이 문제
국제 협력 없인 성공한 나라 건설 못 해

수 있고 보수주의 시민단체들도 그런 세력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민주화세력, 민주화세력 중의 주류가 지금 어떤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있느냐 하면, 결국 야당하고 진보적 시민단체로 돼있는데 이 주류라는 사람들이 反대한민국적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 친미파가 만들어 민족주체성이 없고 남북분단세력, 민족분단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발전했다고는 하나 대외종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해서 이런 나라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혁명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 기반이라는게 뭘니까. 주로 계층적인 점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 일반 시민들

정이라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속에 있는 대단히 강력한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다, 이겁니다.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투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여·야가 머리 터지게 싸우지만 외교정책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잘 된다, 이것은 공동체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같은 국가에 몸담고 있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구관계가 아니다, 우정관계가 아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적대관계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니까 법 같은 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거기엔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지요. 反외세입니다.

반외세 민족자주독립입니다. 이 기본 사상을 지탱해주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역사의식이 한민족 자신이 주체성을 갖고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힘을 빌려 나라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건 정통성이 없다는 거지요. 한반도와 한민족의 半인 북쪽의 사상적 귀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크스주의 한다, 민족주의 한다, 했지만 귀결은 주체사상이거든요. 그 사상적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 그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집필돼 있습니까. 민중운동사,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집필 제작하고 있지요. 그것 만이 정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체노선, 자주노선 갖고서는 제대로 국가를 만든 경험이 없어요. 이 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다 그래요. 철의 장막이라든가, 죽의 장막을 치고 70년간, 80년간 공산주의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개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공한 나라들을 봅시다. 한국 있지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국제협력노선을 취해서 한거지, 자주노선을 걸어서 국가가 된 게 한 나라도 없어요.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들끼리 안되니까 개방으로 국제협력노선으로 돌아서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무역을 하고, 자기국가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개발국엔 본래 자국내엔 근대화의 동력이 없었어요. 그걸 자꾸 있었다고 이야기 하니 거짓말이 된 거예요. 있어도 극히 미약했어요. 그걸 갖고는 근대국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훌륭한 정치가 한 사람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만델라라는 사람, 역사적으로 그런 영웅이 없다고 봅니다. 간디 정도와 비교가 될까. 남아프리카에서 백인의 지배하에서 흑인해방을 위해 싸우다 26년간인가요, 감옥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흑백간의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화해를 했겠어요. 만델라가 마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역사의 진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델라가 이걸 아는 거예요. 흑인 갖고는 근대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백인의 협력을 안받으면 남아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안 것입니다. 바로 그게 흑백간의 화해 본질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과거 이승만이 웬만한 민족반역자가 아니면 왜 친일파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하고도 손을 잡고 나라 건설을 했겠어요.

5면으로 이어집니다.

‘언론과 國益’ 대토론 1·2 주제 지상중계

실력 없는 左派人士는 퇴출시켜야

4면에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거라. 이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애국주의 외치는 서울대학교를 보세요. 서울대학이 외국 유학생 출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중의 80%가 외국 박사들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고급 인재들을 키워내는 힘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文明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만 안 교수님의 주제발표에 이어 두 분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 주실 분은 변희재 CEO포럼 대표입니다. 변 대표는 아마 신문에 제일 활발하게 기고를 많이 하고, 보시다시피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실크로드CEO포럼이라는 것은 1971년생 이하 청년기업가들의 포럼입니다.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아시아 청년기업가들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체 비평자인 미디어워치 대표로서 집필도 하고 기획도 합니다. 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변희재 제가 지금 두 단체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문화연대 중심의 황지우 총장(사퇴)과 진중권씨 등이 있는 한예종, 즉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MBC 100분 토론하고 1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른바 손석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손씨와 진중권씨와 1년째 싸우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와 연관을 지어보려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그 분들에 대해서 좌파라거나 체제부정 세력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좌파라고 규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장한 것은 실력이 안되니까 손석희씨, 더 이상 2009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전문 토론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안되니까 물러가시라고 주장하는 거고, 진중권씨를 비롯한 문화연대 세력한테도 더 이상 2009년에 대한민국 문화정책을 주도할 실력이 안되니까 그만 두시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그 사람들을 좌파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진보 보수를 말한다. 100분 토론’ 현장에서 손씨와 진씨가 제 이름을 거론했는지, 아직까지 대본을 확인하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저를 비롯한 몇몇이 자기들을 좌파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뒤로 제가 1주일째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됐습니다. 단 한번도 저희 쪽에서 비판할 때 좌파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자기들 스스로를 좌파라고 그럴까, 하는 겁니



토론자 변희재 회장.

다. 저는 진중권씨가 실제로도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문화논쟁 등을 다 해 봤지만, 진중권씨는 저보다 더한 신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글에 증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형래 감독의 ‘디워’ 논쟁 할 때 진씨는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국기업이나 외국영화에 대해 반감 가지면 안되고 미국 영화가 더 좋으면 미국 영화 보아야 하고 심지어 삼성과 소니를 비교해서 소니가 더 좋으면 소니제품을 사야 한다는 주장을 서너 차례 했기 때문에, 사실 그제 스크린 쿼터 축소논리고 한미FTA 논리거든요. 아주 공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청년 創業 지원 정책 등 왜 반대하는지 産業化 인정 않고 포용력도 발휘 못해

것이지요. 저는 그래도 한국영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놓고 미국 영화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떻게 좌파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 교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개방성 부분을 갖고 좌우로 나눈다면 진씨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자라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규정할까. 저는 브랜드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파 브랜드보다 좌파 브랜드가 문화권력 쪽에서 더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좌파를 자처한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실력이 없는 것을, 좌우 갈등으로 위장을 해서 버티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력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해 봐야 이런 우파가 좌파를 내몰려는 수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비판이 무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CEO포럼이라는 단체는 사상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활발히 하고 이미 창업한 청년기업가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이런 신성장



토론자 김철 교수.

동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0,000 달러로 가느냐, 이것만 논의하는 실용적 단체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이후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IT사업 봉사자로 1,000명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나가서 자원 봉사하면서 전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한국 젊은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출범 초기에

이런 글로벌 IT 리더, 젊은 리더 10만 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고 있지요. 이런 정부가 앞장서서 계기를 만든게 아니고 한국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외로 뺏어나가는 현상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 됐지요. 저희 CEO포럼에서도 늘 주장해 왔고 그 출신들이 우리 포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창업과 성장 동력 플러스, 대한민국의 영역, 문화영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제영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북한까지 포괄해서 완전히 넓혀가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젊은 세대한테 필요한 거죠. 아시아 대중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사회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에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호의적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이른바 좌파진영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사실상 음해도 하고, 마치 이런 것들이 좌절되기

를 바라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자신감의 차이 같아요.

안 교수님 발제내용에도 87년 민주화 성과를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파 진영 토론에 가면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동시에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사 관련 토론에서 좌파 토론에 가면 산업화를 인정하는 발언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쪽이 훨씬 더 포용력이 있습니다. 언론쪽으로 보면 조선·동아·중앙일보 같은 경우 논조와 다른 주장에서 상당히 많은 포용력을 발휘합니다. 진보좌파 신문에서는 논조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은 거의 칼럼으로 수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교수님께 젊은 세대가 바라는 한국사회로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무력화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력이 없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좌파인사 대부분이,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퇴출시키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文明浩 변 회장께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정통성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좋을 것인가, 그런 의미였죠? 첫번째 질문이...

변희재 정통성을 확고히 하지는 최종 목표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지 않나, 보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로 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文明浩 두 번째는 좌파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변희재 네 맞습니다. 安秉直 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좌파가 시대역행적이니까 새로운 학문적 창의라든지, 사상적 창조라든지, 구체적으로 국가를 건설한다든지, 사업을 이룬다든지 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맥락에선 대체로 들어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건 항상 역사에 순응해야지 역사에 거슬러서는 힘들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통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를 확립하기 위해 만약 좌파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실패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좌파든 우파든 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언론과 國益’ 대토론 1·2 주제 지상중계

放送이 사회 분열-퇴행시키고 있다

5면에서 이어집니다.

헌법체제는 모든 국민이 존중을 해야 법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사람이 불만불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질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외에는 뭐든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갑갑한 것은 자기가 뭔지, 어디에 서 있는 지, 솔직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자기 번지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50~60년 동안 만들어진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건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文明浩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철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부차장, 국제부장, 북한부장을 지낸 언론인입니다. 현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金 哲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세력을 말씀하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우선 질문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정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말하는 문제의 좌경이지요, 이것을 교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우파라든가, 보수파의 시민운동을 통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젠 정권의 문제입니다. 정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문제의 좌익이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국가를 위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문제의 좌익에 대해 법치주의하고 정치적 압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제시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좌파정권 10년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론 어렵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세상 이야기처럼 보수 우파정권인지, 저는 사실은 별로 확신이 안섭니다.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의 일종의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그랬으니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좌익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운명과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대한 일종의 강령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각종 정치라든가, 정부조직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완전한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실용주의밖에 없어요. 실용주의는 강령이



토론자 김순덕 위원.

아니고 조목입니다. 안으로는 갈등 공화국이고 밖으로는 인질 공화국이고, 이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 앞의 정권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점에 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로 봐서 국가미래를 짊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세력에 만연한 좌익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익의 책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安秉直 사회민주주의라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느냐, 그 실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그런 지향성을 보이려



토론자 최희조 교수.

文明浩 제 2주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민 교수를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동대학원에서 역시 신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계신데요,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가장 활발한 기고를 하고 그 기고를 통해 아주 예리하게 문제를 부각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시는 언론교수입니다.

尹錫敏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 언론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21세기가 요구하는 선진화한

표방했던 진보정권 하에서 더 심화했다고 봅니다.

시민성을 결여한 이기적 개인이면서 또다른 일면으로 애국적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2008년의 촛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그 존립의 기반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방송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매개해야 할 역할에서 심각하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위기입니다. 지상과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그 어떤 사회적 매체보다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오히려 이 사회를 통합하고 진전시키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후퇴시키는 퇴행적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작년말부터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보았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의 결론 부분은 원고를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文明浩 아주 아카데미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논문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주시겠는데요, 김순덕 위원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날카로운 논설·논평으로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는 논객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동아일보에서 문화부 근무를 했으며 편집국 부국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 대한언론인회가 수여하는 상을 타셨고, 최은희 여기자상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도 글이 예리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대단히 뒤편까, 앳되고 날카로워 보이진 않는데, 글은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金順德 교수님께서도 신문의 위기를 언급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정치권력 분포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의 이념적 위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주요 언론의 공정성 시비가 광범위하게 제기됐고 언론에 대한 신뢰위기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준은 國利民福 일부 언론의 이념-정파성 매몰 안타까워

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치 경제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지 정치 경제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좌익이라든지, 기타 통일주의라든지, 종북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대한민국 체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무엇을 갖고 보여줄 수 있냐면, 첫째 방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고 둘째는 선거를 통해서 낙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단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항상 열어 놓아야지 닫으면 큰 일 납니다.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 언론을 통해 실천하는 제대로 된 소통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전형적으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소통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소통을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미디어들 역시 그에 따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올림픽, IMF, 월드컵,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 저력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는 평가에 대해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국주의적 열정에 들뜬 국민의 모습이 건강한 시민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거품과도 같은 덧없는 애국주의처럼 다가오고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욕망, 가족, 자기 주변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중간을 채워주는 이웃, 지역, 어떤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시민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른바 진보적 시민성을 강조하고 反권위주의를

盧 전 대통령 「참 뜻」 왜곡돼선 안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장이 엄수됐다. 그러나 교활한 네티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시해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이참에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제2의 촛불사건으로 만들어 보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가 남긴 유서까지 위조라고 우기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실로 타기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세를 지배했던 한 출중한 인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이를 이해하고 “미안해 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당부와 “동네 한쪽에 자그마한 비석을 세워달라”는 소원을 받드는 것이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도리이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국화하여 쇠락하는 자파세력을 중흥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려는 것은 비열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투신 20여분 전에 본인의 PC에 남긴 짧은 유서가 유일하다. 그 유서 어느 곳에, 어느 행간에 자신의

긴급時論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

장례를 국민장으로 해 달라고 했으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 때보다 갑절이나 많은 장례위원을 원했으며, 경북 공 안의 장례식장과 시청 앞의 노제를 원했으며, 봉하 마을에서 천리나 떨어진 수원에서 화장을 해 달라고 했으며,

있었던가. 물론 짧은 노사모들의 짓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덕에 출세한 거물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노사모를 향해 그러서는 안된다 라든가 고인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 적이 있는가. 장례가 치러지기

「제 2 촛불」로 이어가려는 기도 용납 안돼 고뇌끝에 내린 결단 모두에게 교훈 돼야

자신이 담긴 관을 2천리나 끌고 다니라고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주변에서 고관 대작을 누렸고 또 지금도 그 덕에 원내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넘쳐나는 봉하마을의 조문객이 백만을 넘어서서 전국으로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졌는데도 왜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이나 정부의 인사들은 조문을 못하게 했는가. 조문도 선택적으로 받으라는 고인의 지시라도

도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며 장례 후에 따지겠다고 한 야당 당대표는 이 사건을 정쟁의 자료로 삼겠다는 뜻인가.

여하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행한 사람이다.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믿고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짧은 유서조차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유서와는 상관없이 고인을 자신들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데 집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살아있는 네 사람의 전직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고인보다 수십배의 재산을 부정 축재하고도 수의를 입고 복역을 하면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족들이 수십배 수백배 부정축재를 하여 복역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전직 대통령으로 행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은 기구한 자신의 입지전의 종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불우한 소년시절을 거쳐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한 응어리를 9년의 독학으로 사시에 패스하여 승화시키고 판사 변호사를 거쳐 여러번의 낙선을 딛고 대통령이 되는 ‘대형사고’(본인의 말)를 칠때까지, 그리고 600만 달러의 수뢰로 검찰에 소환되는 신세로 전락하는 구질구질한 말년을 일찍 끝내는 그의 결단은 입지전의 종장으로 길이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

6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의 분포에 따라 언론의 이념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지, 그러면 진보정권을 반영하지 못해서 언론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났다는 말씀인지, 사실은 정권성향을 반영하는 일부 신문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닌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國利民福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권위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하루 이틀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나 사변에 의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있는 신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주의를 신봉하는 것 역시 폭력이 아닌 한 관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주체사상이라든지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 신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는 좌파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거기에서 정론을 펴는 신문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 저널리즘 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갈등이 많이 생겨서 다른 모든 문제가 마비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놓아 두자는 말씀을 일찍 지나가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 토론회에 취재하러 오신 기자들께서 서울대 윤석민 교수는 이럴 바에야(미디어법 고치지 말고)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꼭 따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尹錫敏 신문의 공정성 위기 가설, 이 건 제 주장이 아니라 가져 온 것입니다. 저는 김순덕 위원장이 지적하신 사항에 오히려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신문의 위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신문위기에 어떤 본질을 찌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신문의 위기를 자꾸 정당성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돌려 설명을 하려 한다, 그래서 사실 일부 신문, 특히 보수 주요 신문 일간지들을 예로 들면서 비판을 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됐다, 그런 식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문의 위기가 어떤 식으로 극복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문의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데, 신문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소통의 위기,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

반이 되는 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하나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저널리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문의 위기를 바라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신문한테, 아주 부실한 운영을 보이는 신문사까지 끌어안으면서 나눠줘서 살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건강하게 운영하고 시장에 의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 받은 그런 신문들조차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문들이 미디어에 어떤 칸막이를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주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퇴출이 마땅한 기업들까지 끌고 가지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공동체에 상응하는 정론지로 거듭 나는 것, 이 건 바로 전체 저널리즘의 위기를 대상에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루뭉실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선 그동안 무수히 밝혔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文明浩 다음엔 최희조 교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 경제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일보에서 편집국장과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중부대학교 신방과 초빙교수인데 요즘엔 또 사진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 아마 거의 사진작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崔熙助 마지막 토론자가 돼서 시간에 몰려 마음이 급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체제전복 세력의 부단한 도전 위기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 세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표를 얻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있음이 작년 촛불시위때 여실히 드러난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전체 국민이익을 우선 생각하기보다 특정 이념과 정파성에 매몰돼 있는 경향입니다. 신문산업 지원에 대해 윤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신문이 포화상태로 난립해 있는 처지에 경영이 어렵다면 새 주인을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공익을 위해 보도하려 했다면 그것이 오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尹錫敏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만 물어보셔서 좀 난감한데요. 과거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던 신문들이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태마저 거침없이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했던 핵심은 건강한 저널리즘의 토대가 되는 공론적 시민사회 영역이 극히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文明浩 토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회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안 교수님,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

「6·25」 59주- 世界史的 교훈 되새길때

6·25전쟁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이 전쟁은 한반도를 뛰어넘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의 커다란 분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은 수차례에 걸친 김일성의 남침 지원 요청을 스탈린이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 항상 100m 선상에 웅크리고 앉아 뛰어어나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일성에게 출발 신호탄을 발사한 것은 스탈린이었다는 어느 소련 전문가의 지적은 6·25전쟁 결정 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스탈린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 이전에 모택동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결국 6·25전쟁은 북한, 소련, 중국 등 공산 북방 3국이 사전에 공모하여 일으킨 전쟁이었다.

전쟁 발발 소식이 저녁 늦게 워싱턴에 전해졌을 때 미국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배후에 스탈린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배후 개입설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미국 국립문서처에 보관되어 있는 일일 정보보고서인 맥아더의 극동사령부(Far East Command) 정보 보고서(Intelligence Summary)를 보면 소련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아직도 비공개

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인민군 포로들이 진술하는 사단에 배치된 소련군사고문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장에서 붙잡힌 소련 종군기자라든지 소련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보고서에서 삭제되어 있다. 물론 지금은 비밀해제를 신청하면 즉시 삭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이 소련과 관련된 것들이다. 트루먼 행정부가 소련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6·25전쟁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소련의 개입사실

공개에 대해 신중한 미국의 대응과 전쟁 발발과 관련된 소련의 선전이 맞물리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정반대되는 수정주의적 입장이 미국 내의 좌파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유포되다가 급기야 미국과 일본 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은 우리 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6·25전쟁의 수정주의적 해석의 원조는 미국의 좌파 언론인 스톤(I. F. Stone)이었다. 그는 <6·25전쟁 비사>라는 책에서 전쟁 발발 전후 트루먼 행정부의 소련, 동아시아, 한반도 관련 정책들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루먼 행정부가 소련 개입

특별기고



김영호

·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시켜 전면전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경분쟁을 전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강조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는 커밍스(Bruce Cumings)이다.

커밍스의 수정주의적 입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의 원인을 38선 상에서 일어난 국경분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내

전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소련문서의 공개로 설득력을 잃었다. 소련문서를 보면 1949년 10월 중순 38선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해 대규모 국경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때 소련군사고문단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은 즉시 스탈린에게 보고되었다. 미국 국립문서처에 소장된 당

수 있었던 소규모 혹은 대규모 국경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측 군사고문단 정보 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소련 문서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1950년 1월 이후에는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국경분쟁을 도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을 남한의 국경분쟁 도발에 의한 반격으로 설명하는 커밍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6·25전쟁 연구는 6·25전쟁이 더 이상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시야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쟁 발발과 관련된 김일성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6·25전쟁의 성격과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쳐 서울, 워싱턴,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여전히 제국적 위상을 갖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6·25전쟁은 던져주고 있다.

내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세계사적으로 중요하고 동시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전쟁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미국 남북전쟁, 스페인 내전 등 대부분의 전쟁을 다룬 작품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쟁 60년을 계기로 6·25전쟁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치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학, 사회사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쟁 발발 60년을 앞두고 전쟁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www.koreaherald.com]

“국경 충돌로 발발” 수정주의 주장 근거없어 노벨 문학상 받을 作品 아직 안나와 아쉬움

사실을 숨기려는 신중한 입장을 제멋대로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미국측이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음모에 개입되어 있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 정부의 선전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은 자신의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6·25전쟁이 전쟁 직전부터 38선상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내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전쟁 직전 남한에 의한 대규모 국경분쟁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반격을 가함으로

시 미국 군사고문단의 정보보고서를 보면 동일한 국경분쟁과 관련된 보고서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어로 무선 교신을 하는 사실이 포착되어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국경분쟁이 소련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상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북한이 국경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게 된다. 동시에 만약 앞으로 북한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이 국경분쟁에 개입할 경우 즉시 본국으로 소환될 것임을 경고하게 된다. 이 지시문이 하달된 이후 38선상에서는 그 이전에 불

大韓言論人會 언론 산업 전망 세미나

6월 4일 속초서 1,2주제 나눠 토론

위기의 언론산업을 진단해 보는 대한언론인회의 세미나가 강원도 속초에서 6월 4일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후원기 한국일보 감사가 '신문 산업 위기인가'라는 제 1주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신문산업을 진단하고 그 위기 타개책을 제시한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이수범 교수가 제 2주제인 '방송광고의 위축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뒤 토론을 벌인다. 토론은 권영국 강원일보 전무와 성낙오 본회 편집위원장, 신대근 전 대구 MBC 사장 등 4명의 토론자와 참가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할 사람은 서울에서 90여명의 대한언론인회 회우가 전세버스 편을 이용할 계획이고 영동지역 회우 6명은 현지에서 합류한다.



사회
문명호
본회 부회장

제 1 주제

제 목 : '신문산업 위기인가'

발표자 : 후원기 한국일보 이사, 본회 부회장

토론자 : 성낙오 본회 편집위원장

권영국 강원일보 상임 고문

제 2 주제

제 목 : '방송광고의 위축과 전망'

발표자 : 이수범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자 : 신대근 전 대구 MBC 사장

호천웅 전 KBS LA특파원

때 : 2009년 6월 4일

곳 : 속초 한화 콘도

제1주제 발표자



홍원기
한국일보 이사

토론자



성낙오
본회 편집위원장

토론자



권영국
강원일보 전무

제2주제 발표자



이수범
인천대학교 교수

토론자



신대근
전 총주·대구 MBC 사장

토론자



호천웅
본회 편집위원

한국에도 「큰 人物」 나올 때 됐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도 미국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증오감을 품고 있고, 자신의 자녀는 전교조 교사들의 지도를 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보내고, 북한에 가서 살기는 싫어하면서도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로 행세하는 등 주장 따로, 행동 따로를 예사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지부조화증 환자'라고 지칭한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의 글을 읽고 강렬한 감동을 받았다.

이 분은 학자답게 점잖게 썼지만, 이 밖에도 우리 나라 좌파들의 자가당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심지어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 전직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남의 책을 여러 페이지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표절한 사실, 심지어 자기 제자의 논문까지 도용한 사실이 지적되자, '그것은 학계의 관례'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관례라니, 그렇다면 그는 무슨 근거로 진보니 개혁이니를 부르짖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직 중 뇌물을 받은 사건을 놓고도 '그것은 생계형 비리에 불과하다'고 옹호한 대변인

도 있었다. 수십억 원,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수수한 대통령의 뇌물사건이 사소한 생계형 비리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형무소 들어가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단지 여안이 병병할 뿐이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하니, 이러한 궤변과 인식과 행동의 부조화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인가를 나는 의심한다. 이것은 글썽깨나 읽었다는 우리 나라 지식층의 해묵은 풍토병이 아닌가 의심한다. 우리 나라에는 선비들이 있었고, 이른바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국어사전을 들춰보니, 선비란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말하자면 현실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비판세력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일

컸는다. 따라서 이들은 무슨 말을 하건간에 책임질 일은 없는 평론가그룹이다. 오늘날의 좌파들도 평론가그룹 출신들이다. 그들이 어느날 갑자기 실세그룹으로 등장하자 말과 행동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우리 나라 같은 풍토 속에서는 책임지고 일을 하기 보다는 평론가, 감사관 같은 국외자로 자처하고 사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 자연히 남의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자신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앞치락뒤치락 변전무쌍한 난세를 살아가려면 이것이 최상의 처세

時 論



박 현 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 위원
- 전 KBS 사장

두 전쟁의 국외자였다. 그러므로 일제치하는 36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다. '불가불가(不可不可)'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사실을 놓고, 어떤 양반이 '불가불가'라고 썼다는 것이다. 이 말을 갖고 일본경찰이 시비를 걸자, 그 사람은 이것은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취

지로 쓴 것이 아니라 변명했다는 것이다. '불가하고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불가하다'는 취지로 썼다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위기를 파해나갔다고 전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선비들의 기회주의적 언동의 표본이다.

가였다. 각각의 영주 밑에는 그 영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무라이'들이 받치고 있었다. '사무라이'란 목숨을 걸고 주군을 호위한다는 의미의 '사부라우'란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사부라우'하는 사람이 '사무라이'이다. 따라서 '사무라이'는 우리의 '선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주종관계는 '번' 내부의 문제이지 중앙 정부인 '막부'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번'에서 경쟁적으로 일본의 장래를 우려하는 지사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났다. 이렇게 작은 나라로 분리되어 있다가는 서양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영주가 직접 앞장서는 큰 '번'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도 저 규수(九州) 남쪽 끝의 사쓰마(薩摩)와 혼슈(本州) 끝자락의 조수(長州)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는 주종이 일치단결하여 260년을 이어온 덕천막부를 쓰러뜨리고, 천황 중심의 신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천황을 업고 나왔으나 천황은 업혀 나왔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국면을 좌지우지한 인물은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道), 그리고 막부 측의 '가쓰카이슈(勝海州)의 세 사람이었다. 우리

政治실세 책임회피적 무사안일 벗어나야 죽음 두려워 않은 日 개화기 인물 교훈삼길

술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것은 어찌 보면 그 고상한 선비정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말에 우리 나라에도 많은 우국지사가 나왔고, 분사한 애국지사들도 나왔다. 심지어 의병들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빼앗긴 뒤의 일이었다. 이러한 애국적 행동은 망국 전에 나왔어야 했다. 흔히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을 살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36년이란 한·일간에 체결된 을사늑약 이후의 세월이고,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일제통감부가 설치되어 일제치하에 들어갔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러한 책임회피적 무사안일주의는 지금의 정권 실세들의 행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촛불을 겁내고, 일개 관헌업종인 방송국에도 어쩔 줄 모르고 쫓겨 맨다. 검찰이 노무현씨의 구속이나 기소를 이 핑계 저 핑계로 몽개고 있어도 따끔히 말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욕먹기 싫은 것이다. 욕먹을 각오로 나서고 목숨을 걸고 나서도 팽배해진 좌파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자리라도 비우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일할 것인데, 이것은 숫제 부작위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개화기의 일본은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일본은 덕천막부(德川幕府) 밑에 270여개의 번(藩)이 있었다. '번'은 사실상 각각 하나의 독립국

가 잘 아는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조수' 사람이고, 이들보다는 훨씬 비중이 떨어진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공로로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는가. 그렇지 않았다. '사이고'는 일찍이 자살하고, '오쿠보'는 젊은 나이에 암살되었다. '이등'은 우리의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일본은 일찌감치 통일되고, 서구화 근대화의 길을 질주하여 오늘날의 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파의 장단점과 좌파의 허구성을 남김없이 경험하였다. 이제 진실하고 참다운 애국적인 큰 인물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이제부터는 아마추어적이고 원론적이며 교과서적인 언설을 자제하고 어른답게 대국을 보아야 한다. [4]

제4회 임승준 자유언론상 여영무- 김태훈 씨 선정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가 주관하는 '임승준자유언론상기금'(이사장 손장순)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여영무(呂永茂)씨(논설·논평부문)와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김태훈(金泰勳)씨(문학취재보도부문)를 제 4회 '임승준자유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2009년 6월 22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여영무씨는 활발한 집필 활동과 저서 <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언론 창달에 힘썼고 김태훈기자는 문학취재보도부문에서 뛰어난 기획과 다수의 특종을 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임승준자유언론상'은 신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필을 지낸 고 임승준씨의 유족이 고인의 외길 언론인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 공적은 다음과 같다.

논설·논평부문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정통성 수호를 줄기차게 역설해 왔으며, 특별히 인터넷 신문 뉴스앤필과 저서 <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 좌파정권 10년의 언론탄압을 심층적으로 분석 고발하는 등 자유민주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함.



문학취재보도부문 김태훈(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지구촌 문학의 최전선'을 기획, 우리 문학의 관심사를 세계의 눈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독자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2008년 현대시 100주년을 맞아 총 200회에 걸친 현대시 대 연재 시리즈를 기획, 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함.



記者→CEO→農場主… “인생경

신문기자에서 CEO를 거쳐 농장경영까지 ‘영원한 현역’ 김태운(金泰運·82) 원로회우. 그는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는다’는 좌우명을 묵묵히 실천하며 ‘인생을 경영’했다. “인생의 길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폭과 깊이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삶의 텃밭’을 기름지게 일궈냈다.

열정 불태운 기자시절

인터뷰 약속을 한 지난 5월 19일.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전화를 받고 내려갔다. 약속시간보다 10여분 이른 시간이다. 승용차를 손수 몰고 온 김 회우의 첫 인상은 콧수염에 나비넥타이가 상징인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커넬 샌더스’를 닮았다. 넉넉한 풍채에 화색이 도는 얼굴뿐만 아니다. 65세에 105달러로 1009번 거절당하며 KFC를 일군 뒤 75세에 새로운 일에 뛰어든 불굴의 의지도 흡사하다.

황해도 海州에서 태어나 해주사범을 나와 홍익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김 회우는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다. 그의 인생항로의 물꼬를 열어 준 분은 황해도 출신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최태응(崔泰應 1917~1998)선생. 소설 〈바보 용칠이〉 등을 쓴 문인이자 ‘민주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고향 선배가 신문기자 되기를 권했다.

1951년 10월, 평화신문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조선일보는 수원, 경향신문은 부산에서 발행되던 시절, 평화신문은 서울 인현동에 본사가 있었다. 정광모(현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심종구, 정성관 씨 등이 함께 일했다.

그 뒤 경향신문 사회부장(1960년), 서울신문 사회부장(1965년), 매일경제 부국장(1970~1975년)을 끝으로 25년 간 젊음을 불태웠던 언론계를 떠나 기업인으로 인생항로의 방향기를 틀게 된다.

-격변기에 신문기자를 하시면서 술한 애환을 겪었을 텐데요?

“물론이지요. 경향신문 소공동 시절, 최다 부수를 자랑하는 야당지로서 뿌듯한 긍지를 느꼈는가 하면,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이 폐간당하는 뼈아픈 일도 당했지요. 알다시피 신문 단평 ‘여적(餘滴)’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폐간시킨 자유당 정권시절 최대의 언론탄압 사건으로 암울한 시기였지요.”

그는 차분하게 말을 잇는다. “소공동의 ‘검은 그림자’는 그 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경향신문 경영진과 오너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간의 알력으로 신문발행을 하루 중단한 사건도 한국 언론사의 씻지 못할 치부”라고 밝히면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다. “시인 李容相이 쓴 ‘용금옥 시대’에서 시인 具常 씨를 떠올리며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한 바 있다”며 말을 아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1952년 10월 판문점 휴전협상 취재였지요. 신문에 취재용 차량 한 대도 없던 시절, 외신기자들과 함께 UN군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1>

요.” 덜덜거리는 비포장 길을 달려 문산에 도착하니 허허벌판에 객차 4~5량을 매단 증기기관차가 허연 수증기를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Press Train으로 불리던 ‘신문열차’다.

그 곳에서 밤을 새운 뒤 판문점으로 향하니 회담 장소는 아전천막이었다. UN군 측과 북측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취재하고 편집국으로 오면 외신기자들이 타전한 기사가 지구를 한바퀴 돌아 이미 데스크에 올려져 있던 열악한 취재환경이다. “요즘 취재시스템은 첨단이지만 기자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의 결여가 아쉽다”고 지적한다.

-그 당시 취재장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외신기자들이 타이프 라이터로 기사를 타전한 시절, 우리는 초단파(超短波) 시스템이 고작이었지요. 1958년 3월 6일 KNA機 남북 승객 송환현장을 판문점에서 취재, 릴레이식으로 기사를 송고하여 타지에 앞서 경향신문 호외로 보도해 긍지를 느꼈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판문점 송환 현장 최 일선에 있던 김태운 기자가 1호기 단파로 문산의 2호기로 보내면 구파발에 있던 기자가 3호기로 받아 사회부 데스크 4호기로 전달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 한방이면 끝났을 일인데 돌이켜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씩씩하게 웃는다.

1958년 2월 16일 俞鳳淳 국회의원, 金鎭燮 본회 원로회우(92) 등 34명이 탑승

회우초대석

金泰運

제주 白淵農場 운영
전 제주 파라다이스골프클럽 사장
전 경향신문 사회부장, 매일경제 부국장

인터뷰 글·사진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리스트)



1995년 10월 제주 파라다이스 골프클럽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 미국 LPGA 정규대회에서 김태운 당시 파라다이스 대표이사가 우승한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게 우승컵을 전달하고 있다.



1995년 4월 방한한 베트남 도모이 서기장(오른쪽)이 제주 파라다이스 골프클럽에 들러 김태운 사장에게 “베트남에도 이런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는 영원한 현역 언론생활 바탕 名品 골프장 건설 등 큰 업적

한 민간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북한은 “의거 월북이다”며 억지를 부리다 남북 18일 만에 26명을 송환한 냉전시대의 사건이다.

공산품서 골프장까지 사업

-언론계를 떠나 기업인으로 인생항로를 바꾼 계기가 궁금합니다.

“1975년 골프 모임 ‘八蜂會’ 멤버였던 金聲鎭 極東스프링클러(株) 사장(현 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이 함께 있어달라고 제안하여 펜 대신 비철금속을 잡게 됐다”고 한다. KS제품과 국가검정품 등 공산품을 제조하던 회사다. 이사를 시작으로 상무, 전무를 거쳐 CEO자리까지 올랐다. “공장을 새로 짓고 제 2공장 부지를 사놓고 이제는 좀 편해지려니 했는데 김 회장이 ‘명문 골프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번엔 ‘잔디’를 만지게 됐다”는 것.

1992년 제주로 내려간 그는 삶의 영역을 海州에서 濟州까지 넓혔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그린을 만들고, 페어웨이를 조성하고, 티잉그라운드를 다졌다. 만 3년

동안의 役事 끝에 99만㎡(약 30만평)에 27홀 규모의 ‘명품 골프장’ 제주 파라다이스GC를 탄생시켰다.

“오픈하던 날 국내의 귀빈들이 참석하여 ‘한국 골프장의 이정표를 바꿨다’는 격찬을 해주었고, 베트남 도모이 서기장은 ‘베트남에도 이런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지요. 3년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개장 6개월 만인 1995년 10월 세계챔피언십을 유치했다. 국내 최초의 미국 LPGA 정규대회로 26개국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냈고 SBS TV에선 지구촌에 생중계했다.

-골프와 인생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은?

“유명한 영국의 골프평론가 헨리 롱hurst가 ‘골프를 보면서 나는 인생을 생각한다. 아니 인생을 보면서 나는 골프를 생각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인생에 애환이 있듯이 골프도 짜릿한 기쁨과 좌절이 있고, 예측불허의 골프공과 예측이 불

가능한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그는 “골프 플레이를 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보면서 골프의 위대함을 터득하게 됐다”고 덧붙인다.

그의 골프실력은 애호가 수준을 뛰어넘는다. 〈한국 골퍼사〉(1973년), 〈골프實像 虛像〉(1986년), 〈골프-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달나라까지〉(1997년), 〈위대한 골프〉(1999년) 등 해박한 골프저서와 〈나원의 꿈은 사라지고〉 번역서도 출간했다.

김 회우는 제주 파라다이스GC 사장과 고문을 거쳐 ‘제주 白淵農場’을 경영하며 흙으로 귀의했다. “처음엔 감귤나무 등을 직접 관리했으나 요즘은 위탁관리하며 가끔씩 제주에 내려간다”고 밝힌다.

“나를 키운 건 어머니와 知人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다. 노인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활동에 제한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통계에서도 보듯이 건강이 나쁘면 삶의 질도 떨어지

영 은퇴는 없다”



김태운 원로회우가 남산에 올라 지난 날을 회고하며 포즈를 취했다.

게 마련이다. 김 회우가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저력은 건강과 폭넓은 대인관계다. 여든 두 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건강관리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게 건강비결 같다”며 껄껄 웃는다. 담배는 30년 전에 끊었지만 술은 여전히 즐긴다”고 한다. 운동은 매일 헬스클럽에 나가 땀을 흘리고 가끔 필드에 나가는 게 고작이라는 것.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요. 건강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 등은 잘 안 먹고 오히려 해롭다는 육류를 많이 먹어 배불뚝이가 됐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좋아 타고난 건강체질인 것 같다”며 환하게 웃는다.

-연세를 실감할 때도 있으실 텐데요?

“술친구가 하나 둘 사라질 때 나이를 실감하지요. 친구들이 타계하거나 술을 끊었다며 손사래를 치는 게 아쉬워요. 어떤 친구는 ‘딱 6개월 뒤에 마실 게’ 하며 꿈무늬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술은 막걸리 이외에는 다 즐긴다고 한다. 가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실 때도 있다는 것.

-살아오면서 삶에 영향을 끼친 분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은 어머니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1948년 형과 저, 그리고 남동생 3형제를 이끌고 월남했어요.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 주

셨지요. 어머니는 내 삶의 지표로 지금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저는 人福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태응 선생은 기자로 이끌어줬고, 李漢鎔(전 경향신문 부국장), 昔泉 吳宗植(전 평화신문·경향신문 편집국장), 申泰旼(전 경향신문 부사장), 崔錫采(전 경향신문·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은 내 삶에 영향을 주신 언론인들입니다. 특히 昔泉은 올챙이 기자시절 그의 집에서 1년 기거할 정도로 보살펴 주셨지요. 피난시절부터 알게 된 소설가 金來成은 형제처럼 지냈고, ‘흰 연꽃’에 비유한 호 ‘白淵’을 지어준 金八峰 작가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대인관계의 폭 만큼 삶의 폭을 넓혀준 분들이라고 한다.

김성진 회장은 기업인의 길을 걷게 해주었고, 30여년 간 ‘나자로마을 돌기운동’에 동참한 李庚宰 신부를 통해 믿음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한다.

40년 동안 회로애락을 나눈 삶의 동반자인 아내(李榮快)를 14년전 저 세상으로 소풍 보낸 뒤 홀로 사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만아들 承榮(52·斗山 상무), 둘째아들 承悅(50·컨선티트사 사장)과 며느리, 그리고 외동 딸 承林(48), 사위 李東駿(50·베스트라여행사 사장)과 손자 손녀(5명)들이 채워 준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들려달라는 주문에 “꼭바로 살아라, 그래도 흐트러지기 쉽다”는 말을 화두처럼 던진다. 정정한 가운데 삶의 여백이 묻어나는 김 회우는 참 행복한 실버다. [문]



강화도 밴댕이 횃집에서 오찬을 즐기는 회우들(2009.4.20).

우리들 모임

一言二金會

고양시 일산 지역에 사는 언론인들이 매월 두번째 금요일에 모인다 해서 약칭 ‘일언이금회’(一言二金會). 남아일언중천금이라던가 만날 때마다 해학이 넘치고 천금보다 더중한 웃음꽃이 만발한다. 돌이켜보니 20명 가까운 회우가 일산의 명소 호수공원 팔각정에서 8년전 김밥잔치를 벌였던 때가 엇그제 같다.(신동아 2002년 10월호 권두화보)



정운종

- 본회 회우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 현 시사문제연구소 소장

애칭 ‘정코’로 유명한 정재호 전 국회의원이 초대 회장을 맡고 윤기병 총무가 매월 수고해오던 우리 모임이 손세일 회장, 정운종 총무체제로 바뀐 지 4~5년 쯤. 필자만 빼놓고 재직시절 모두들 한가락 했던 언론인들이 퇴직후 백발이 성성해 만나는 기분이 어떨지는 상상에 맡긴다. 주로 건강이 주제가 되곤하지만 때로는 고담준론 우국충정의

언론인동우들이 봄놀이를 하니, 尋海江華戲白鷗/바다를 찾아 강으로 가 백구와 노니네, 長旱渴心甘雨潤/오랜 가뭄으로 갈증난 마음을 단비가 적셔주고, 挑梨婢競路邊丘/길가 언덕엔 복사꽃 배꽃이 아름다움을 다투네, 墩臺岸堡恨兩亂/해안 돈대의 성채엔 병인양란의 한이 맺히고, 三別抗蒙貞石惻/삼별초의 항몽 호국비는 슬프기만 하네, 窓外降霖

仁穆淚/창박에 내리는 비는 인목대비의 눈물인가, 暮霧水國使人愁/저녁안개 깔린 섬나라는 사람들을 우수에 잠기게 하네. 강화도 기행후 박형규 회우가 남긴 시 한수 ‘雨中遊江華’는 우리들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준다.

매월 거의 빠짐없이 자리를 같이하는 회우는<괄호안은 전직, 가나다순>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현재 한국문명

一山지역 20여명 名所 순례 즐겨 수지지역 「一木會」와 친선 만남도

로 장내가 숙연해지곤 한다. 손세일 회장의 이승만 김 구 연구, 김영일 김정남 박형규 윤기병 전신병 정재호 회우의 박정희 향수, 구종서 박사의 몽골 삼별초 칭기즈칸 그 해박함이 남다르니 녹취해 놓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다. 그 옛날 잘 나가던 시절 취재비화나 못다한 얘기들로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도 가끔 노래방에서 목매를 벗길 때면 모두들 명가수가 따로 없다. 장소를 옮겨 수지언론인(一木會)들과 번갈아 가며 친선의 기쁨도 만끽했다. 어디 그 뿐인가. 정보통으로 소문난 이억순 회우가 주선한 덕양 어울림누리 견학, 고양시 시정브리핑, 벽제농원 만찬, 배다리 술(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마시던 술)박물관 시음, 구종서 박사의 안내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화도 해안도로를 일주한 뒤 외포리 밴댕이 횃집에서 오찬을 즐기고 귀로에 사정이 있어 불참한 정재호 회우가 마련한 평양생면집 뒷풀이는 우리 모임의 생동감을 더해 준 값진 이벤트였다. 특히 一山言友賞春遊/일산

사연구소장), 김영일(합동통신 정치부장), 김정남(대구매일 정치부장, 국회의원), 김해도(한국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박형규(서울신문 감사, 국회의원), 손세일(동아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 윤기병(중앙일보 정치부기자, 정무장관실 1차관), 전신병(동화통신 정치부장, 민주평통운영위원), 정규웅(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운종(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재호(경향신문 정치부장, 국회의원, 현재 헌정회 부회장) 회우 등이다. 이밖에 김광섭(작고, 경향신문 편집국장, 대한언론인회 회장)선생도 초창기 회우로 일산에 사셨고 괄지용(작고, 동화통신 정치부장, 한국기자협회장), 이경식(동아일보 정치부차장, 공보처 차관), 김지운(중앙일보 논설위원,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상만(음악평론가) 이인원(문화일보 사장), 한동원(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한국언론연구원장)씨도 가끔 모임에 참석했고 이채주(동아일보 주필)씨는 수지로 이사가 일목회 회원이 됐다. [문]



Nature & Human Life - 농협카드



비씨카드

한국기자협회카드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자부심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펜끝의 강함으로 특별한 세상을 열겠습니다.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한국기자협회카드!**

01 / 연회비 평생면제

02 / 전국 농협판매장 2% 할인 혜택

03 / 전국 주요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04 / SK주유소 0 당 50원 할인

05 / TOP포인트 0.1%~10% 적립

06 / 인터넷 영화예매시 1,500원 할인(월2회)

07 / 해외 로밍 서비스 : 휴대폰 임대료(일2천원) 및 최저사용료 부과 면제

08 / 주요 놀이공원 할인(월1회)

09 / 금융거래 우대서비스 (중앙회만 해당)

10 / 전화영어 수강료 최대 40% 할인

11 / 별초대행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http://card.nonghyup.com>)를 참조 하세요.

Nature & Human Life
농협카드

농협CA투자신탁운용 · 농협선물 · NH투자증권



그 곳에 가면 젊음이 되살아 난다

실버 라이브 카페 ‘로맨스 파파’ 르포

현역에서 은퇴한 실버들의 하루는 길고 밤은 짧다. 아직 술 마시는 ‘술시’라기엔 이른 지난 20일 오후 6시, 실버 라이브 카페에는 노인들이 30석 좌석을 절반 넘게 채웠다. 깔끔하게 차려 입은 남성들과 한껏 멋을 낸 여성들이 끼리끼리 둘러앉아 담소하며 술잔을 부딪친다. 부부인지 연인 사이인지 아리송한 남녀어르신도 눈에 띈다.

원로가수 남백송이 무대에 올라 흘러간 옛 노래를 구성지게 부른다. 3인조 밴드도 60대다. 고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 춤을 춘다. 막춤이나 ‘개다리 춤’이 아니다. 지르박과 탱고, 블루스 스텝이 왕년에 한가락씩 한 솜씨로 끼가 넘친다. 손을 내밀면 낯선 남녀가 스스럼없이 어울려 돌리고 돈다.

무대에서 내려온 남백송 씨를 만났다. 올해 일흔 넷이라기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고 목소리도 녹슬지 않았다. “노인 전용 라이브 카페가 문을 열어 우리도 활동공간이 생겨 기쁘다”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니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즐겁다”고 한다.

“50대 이하 꼬맹이는 가라”

좌석 사이를 누비며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여성 종업원들 가슴엔 ‘춘옥’ ‘영애’ ‘선아’ 등 60년대 식 촌스러운 이름표가 달려 있어 더 정겹다. 얼굴이 발그스레 달아오른 할아버지가 “춘옥 씨,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술 한잔 하고 싶은 데...” 즉석 미팅을 부탁한다.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실버 라이브 카페 ‘로맨스 파파’의 풍경이다. 전단지지의 문구처럼 ‘50대 이하 꼬맹이는 가라!’, 60대 이상만 입장하는 실버 전용 카페다. 20~30대만 출입하는 ‘2030 카페’와는 달리 이곳은 ‘젊은이 금지구역’이다. 다만 부모님이나 친지어르신들 모시고 온 젊은이만 예외인 노인천국이다.

서울 관수동 국일관 2층에 위치한 ‘로맨스 파파’에는 한잔의 추억과 젊은 시절의 낭만이 출렁인다. 60년대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 나라도 노년의 사랑을 그린 김승호 주연의 영화 ‘로맨스 빠빠’가 공전의 히트였다.

김동욱(金東昱·59) 대표는 “실버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한다. 상호에 ‘로맨스’를 넣은 것도 그런 이유다. 내년이 환갑인 김 대표는 “전국에 라이브 카페가 약 500여 개 있지만 노인들이 월만한 라이브 카페가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것.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데 노인들이

즐길 만한 문화공간은 드문 게 우리의 현주소다.

옛 가수 추억의 노래 식사는 구이와 찌개, 육개장 등 6,000원, 소주·맥주·막걸리는 3,000원, 안주는 8,000원~15,000원으로 노인들의 가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벼운 주머니를 고려했다. 지하철 종로3가 역은 1, 3, 5호선이 만나는 곳으로 종묘공원 등 접근성도 좋다. “입 소문을 듣고 천안 등지에서 공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귀띔해 준다.

김 대표는 30대부

터 카페를 운영해온 ‘베테랑 물장수’로 노인들이 즐겨워야 자주 찾게 된다면 매 시간마다 흘러간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라이브 음악과 웃음을 선사한다. ‘전화통신’의 남백송을 비롯하여 ‘야생마’의 김하정, 국악인 김백국 등 실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체 출연한다.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의 한명숙, ‘추풍령’의 남상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의 박건, 30년전 극장식 쇼무대의 명콤비 코미디언 흥해 남춘, 나훈아를 대신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너훈아 등이 무대를 거쳐갔다.

친구들과 함께 들렀다는 60대 할머니는 “왕년의 스타 가수들을 직접 보면서 노래를 들으니 젊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즐겁다”고 한다. 지난 1월 문을 연 허리우드극장 실버영화관(본보 09년 3월호 소개)에서 영화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는 70대 할아버지도 “난 아직 마음은 청춘이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따라 생겨 살맛이 난다”며 건배를 외친다.

젊은 사람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놀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라며 입을 모은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500~700명, 주말에는 1,000여명 넘게 찾는 노인들의 명소가 자리매김 했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는 적자 운영이지만 6월을 고비로 소득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 실버 카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지역에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실버 문화벨트’ 조성

탐골공원을 중심으로 실버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자생적으로 늘어나 새로운 실버풍속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탐골문화예술학교는 마임, 연극, 영상미디어, 난타, 라디오방송국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즐기는 문화에서 문화생산의 주역으로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을 불태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16억원을 들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허리우드극장 실버영화관~탐골공원~종묘공원에 이르는 지역을 ‘실버 문화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일대는 평일 3,000명, 주말 4,000~5,00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르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버 노래방, 실버 공연장, 실버 무도장, 실버 찻집, 시니어 아카데미 등 건전한 어르신 문화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니 고령화시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4]



왕년의 스타들 노래에 맞춰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실버들.



원로가수 남백송이 흘러간 옛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관수동 국일관 2층 60세 이상만 출입허용 원로가수 노래 맞춰 춤... 술·안주 값도 저렴



실버 라이브 카페를 연 김동욱 사장.

함부로 쓰는 보도用語 異質感 부추긴다

신문지면의 단어와 언어가 갈수록 난삽해지고 있다. 뜻이 통하지 않는 단어, 원래의 의미와 동떨어진 단어, 말의 참 뜻을 모르고 쓰는 언어, 어설픈 표현이 없는 이방언어가 판을 치고 있다.

“을 들어 서민들과 관련된 소주, 삼겹살, 생활필수품, 참고서, 학생복 등의 서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조선 5/13), “서민 학생들의 채무 불이행 등 특기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중앙 5/11), “서민 가게에서 비중이 큰 생활필수품 품목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문화 5/14)

우리말 사전은 ‘서민’을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닌 평민 백성’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서민’이란 표현이 평민 백성을 그다지 비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 같은 서민에게 과분하다”에서처럼 구어체로 사용되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도 없는 ‘서민물가’ ‘서민 학생’ ‘서민 가게’라는 용어를

신문 지면에서 만나게 되면 스스로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의 기분이 어떨지는 짐작이 간다.

물가정책 당국의 발표문에도 ‘서민물가’라는 용어는 없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물가로 나누고 소비자물가 중 “생활물가가 가파른 상승 추세”라는 설명이었다. 언론은 왜 ‘생활물가’를 ‘서민물가’라고 돌려 표현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시민 빈곤층의 심기를 건드리는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한지 오래인 나라에서 ‘서민학생’이라고 표현해 어떤 관념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인가. 괜한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굳이 귀족 부유층과 대비하려 드는 의식의 잘못을 지적하려 함이다.

효용성과 품질을 따질 때 신문 만큼 저렴한 상품은 드물다. 월정 구독료 15,000원만 내면 각종 정보가 그득한 종이다발을 한달 내내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해 준다. 이처럼 좋은 상품인 신문

이 최근 들어 구독자 격감으로 각 신문사가 상당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광고단가의 주요 잣대인 판매부수의 격감현상이 비단 경기침체에서만 비롯됐다고 여길 일이 아니다. 바로 개미군단 일반 독자들의 등 돌리기가 주원인 일지도 모른다.

“성북구 일대의 가정집에 들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데도 아랑곳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매일경제 5/18),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수입산 가짜...”(한국 5/14). ‘수입산’이 옳은 표현이라면 ‘수출산’도 옳은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요사이 신문은 우리말이 아닌 말을 우리말처럼 사용하면서도 좀체로 부

‘스포츠’ ‘웰빙’ ‘스캔들’ ‘리그’ 등이 어찌됐는가. 그러나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더 정확하고 정감이 묻어나는 말들을 예뻐한 영문자로 표현하려드는 행태를 어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도 귀족 상류층보다 ‘서민’을 낮춰보려는 심산의 단편인가.

아무래도 이러한 언론의 부추김과 주동역할 탓일 게다. ‘한강 르네상스’ ‘클린에너지’ ‘다산 콜센터’ 같은 영문식 표기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말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영어마를 한두 개 쯤 운영하는 게 자치행정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된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원어마을’이란 표지판을 버젓이 내거는 데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영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원어가 되었다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몸부림쳤던 선열들의 피눈물은 한낱 물거품이었던 말인가.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우리

생활물가를 「서민물가」로 표현 빈곤층 자극 우리말 아닌 것을 우리말처럼 예사로 사용

어가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용 팬티만 훔친...”(동아 5/13), “건전지가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가정집에서 발생했다.”(한겨레 2/23).

가정집을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새겨야 하는지, 아파트의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흔히 ‘주부’를 음운을 맞추느라 ‘가정주부’라고 쓰기는 하지만 이때는 아파트 주부까지 포함시키면서 왜 ‘가정집’을 ‘아파트’의 상충개념으로 삼는 것일까. ‘일반 주택’이 보다 정확하고 쉬운 표현인데 말이다. 역시 아파트를 귀족 상류층의 전용물 또는 상징물로, 가정집은 저소득 서민의 대명사로 여기는 내면의식의 무의식적 발로는 아닌가.

‘국산 쇠고기’ 아니면 ‘한우’가 적합한 표현인데 ‘국내산 쇠고기’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외국산 쇠고기(수입 쇠고기)를 꼭 ‘수입산 쇠고기’라고 기술한다. 문법은커녕 어법에 전혀 맞지 않는

끄러워하지 않는다.

한·일합방 이전까지는 어려운 한자 표기를 많이 잘 하는 것이 대단한 유식인 것처럼 여겼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열댓동안까지는 일본어를 한두 마디씩 섞어 쓰는 것이 은근한 자랑이었다. 그러다 잠시 우리말 사랑이 활발해져 일본 단어를 기피하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 애썼다. 그러더니 어느 샌가 영어 단어를 즐기기 시작했고 이제 신문 지면의 아마도 20% 이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의 신문은 영어 단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다. “Living & Life” “Week &” “Book Story” “스타일” “클린” “리스트” “그린시티” “그린푸드 존” “바이 코리아” 등의 이방언어가 영문자 또는 한글자로 뒤범벅되어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디지털’ ‘타임캡슐’ ‘패스트푸드’ ‘토털패션’ ‘펀드’ 그리고 우리말보다 더 친숙해진

말’은 우리에게 이제 외국어란 말인가.

‘꽃샘추위’ ‘갯길’ 등 아름다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예전의 신문이 지금은 ‘사망’과 ‘서거’를, ‘시신’과 ‘유해’를 구별하지 못해 “노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특보를 준비했다가 뒤늦게 ‘서거’로 고쳐 쓰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해’를 생물학적 표현인 ‘시체’보다 눈곱만큼 예우한 ‘시신’으로 일관하는 언어감각의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문을 읽으면 역사가 보인다. 언어 변천사를 말함이다. 신문언어는 세태의 반영이면서 아름다운 언어의 보급처이자 보관창고다. 이것이 언론기능의 중요한 한 축임을 자각해야 한다. 연속되는 사안마다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기껏 언저리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말이라도 좀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훗날 이 시대의 신문이 ‘우리말 지킴이’ 역할 한가지만은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 [4]

論壇

갈등 共和國 이끈 토론 文化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은 분단이며 이 시대 최악의 암 세포는 갈등이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갈등의 암에 걸려 있다. 갈등의 암 세포가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 같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부터 갈등의 암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부터 친이·친박의 세력 다름이라는 암 세포에 휩싸여 있고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간의 암 증세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다. 집안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들의 불화가 흔한 일이 돼버렸고 좌와 우, 보와 혁은 사활을 건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지역 간

이익 다툼과 감정 싸움에는 도지사들이 앞장서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모든 사회에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함이 귀한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덕(德)이요 선(善)임을 깨우쳐 왔던 것이다.

그러나 내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여기에 유권자들의 표수(票數)를 계산해서 특정지역이나 계층을 내편으로 만들어온 정치꾼들 탓에 지역 감정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됐다.

정치꾼들은 또 이를 교묘히 이용해 집권하기도 하고 권력행사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정치의 본질이란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이라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신봉자들은 확신한다고 한다.

우리의 정치관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마키아벨리스트들이 떼를 이루고 있으니 갈등의 확대 재생산은 피할 길이 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토론 문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의 달인을 대통령으로 모신 지난 정권은 토론 문화가 꽃을 피운 토론 공화국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취재주관
· 신성대 교수

모든 것을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토론 지상주의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암인 갈등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키웠다는 말이다.

15면으로 이어집니다.

公權力집행 - 不法시위 同格취급에 눈살

공영방송과 공권력

죽창이 다시 등장했다. 언제 보았던 것인가. 기억이 감감하다. 6·25를 경험하신 분 중에는 죽창의 악몽에 아직도 치를 떠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인민군 앞잡이들이 죽창을 꼬나들고 동네를 살살이 뒤져 그들 말로 '반동분자'를 끌고 나와 동네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죽창으로 찔러 학살하던 모습을 어찌 잊을 것인가.

이와 같은 아픈 기억을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건 아마도 연목구어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일어난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가두시위에서 몇년만에 다시 등장한 죽창과 이에 맞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전경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공영방송을 보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5월 18일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속보를 전한 여기자의 균형감각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맞출 수가 있

는가. 경찰의 발표내용 인터뷰 장면과 민노총 대변인의 반응을 거의 똑같은 길이로 편집해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도 16일 경찰발표와 민노총반응을 그대로 빼담은 듯한 모습이다. "민노총 시위참가자들이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가두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불법시위로 규정,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경찰 발표내용과 "경찰이 먼저 물대포를 쏘며 강제진압에 나서자 시위자들이 이에 항의한 것이며, 폭력을 유발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는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언뜻 이를 시정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노총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기서 KBS기자가 간과한 것이 한가지 있다. 한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 집행자"이고 한쪽은 "불법시위자"라는 점이다. KBS기자가 편집해 내보낸 인터뷰는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권력과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주장도 균형을 맞춰 취야만 공정방송인가. 여기서 필자는 이병순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KBS의 보도방향이며 방침이냐고. 공권력 무력화에 KBS가 앞장서는 것은 아니냐고.

보수우파가 뿔났다.

MB가 변했다. MB가 좌로 돌아갔다. MB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파를 두고, 어떻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우파를 외면하고 좌파와 손을 잡을 수가 있는가. 대표적 우파 문인중의 한 사람인 복거일이 방송을 통해 MB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MB가 황석영의 손을 잡으면서다.

방송시평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경찰발표-민노총 반응 같은 길이로 편집 보도 左派 정권10년 방송장악 放改委 보고서 충격

복거일은 5월 15일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MB가 좌파 소설가 황석영을 특임문화대사로 내정한데 대해 "이문열 같은, 좌파 정권 아래서 핍박받은 문인들을 제쳐 놓고, 갑자기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황석영을 데리고 가면(우즈베키스탄 방문때) 우파시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우리가 고생해서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배은망덕이 아니냐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모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복거일은 "좌파정권 아래서 황씨는 대접을 받았지만 좌파정권 아래서 핍박을 받은 우익문인들이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이문열은 책 장례식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MB가 이문열같은 분들을 먼저 만나고 초청한 뒤에 황석영을 만나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며 "의도가 어찌 됐든 순서가 뒤바뀐 것은 인간적 도리나 정치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거일은 이어 "좌파 문인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쪽도 살만하다고 말해, 감옥까지 갔다온 사람만 달랑 데리고 나가니 보기가 그렇다"고

나고 있는 와중에 복거일이 방송에서 MB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MB를 지지해온 우파 내부의 동요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파와 왜곡으로 얼룩진 방송 10년

방개위의 보고서가 방송가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전현직 방송인들이 주축이 된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14일 출범식을 갖고 <좌파정권 10년, 방송장악총격보고서> 출간보고회를 열었다. 방개혁은 이날 출간보고회에서, "좌파세력 집권시 온갖 특권적 아성을 쌓고, 귀족적 안락함을 누려온 지상파방송사 노조의 추악한 비리와, 이들과 구정권의 야합을 사실에 근거해 파헤쳤다"며, DJ정부와 지상파의 유착, 노무현정부 당시 편파적인 탄핵방송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김대중정부와 유착관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출범한뒤 정부는 홍두표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내자, 박관상 사장을 임명하면서 이형모 당시 언론노조위원장을 차장급에서 한달사이 초고속으로 승진시켜 부사장에 임명했다. 2002년 남북

말했다. 그는 이어 "MB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분들이 우파 일각에 실제로 있다"면서 "자꾸만 자기의 핵심지지 기반이 회의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MB가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우파 일각에서 MB의 정체성이 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늘어

간에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MBC는 6월 29일부터 발발원인을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어선의 월북 조업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2000년초 KBS는 연해주TV가 보도한 내용과 비디오저널리스트가 촬영한 테이프로 "긴급입수 탈북난민 7인의 증언공개"를 일요스페셜에서 방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방영 며칠전 취소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북한탈출 난민들의 신랄한 체제비판과 처참한 생활상이 담겨 있었다.

2, 노무현정부와의 밀월

노 대통령은 취임직후 KBS를 찾아가 "내가 방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느냐, 앞으로 방송이 가지는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정부 출범직후 해직언론인과 노조출신 인사들의 방송계 진출이 두드러졌다. KBS사장에는 한겨레신문 정연주씨가 임명됐고, MBC사장에는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씨가 부장대우에서 파격적으로 발탁됐다.

3, 탄핵규탄 편향방송

2004년 노무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상파방송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아무리 느슨한 잣대로 보더라도 편파적인" 탄핵비판 프로그램들을 방송했다.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좌편향 프로그램의 대표격으로, 김·노정권시 30여개의 각종 상을 휩쓸었다. KBS의 드라마 "서울 1945"는 대한민국 건국 주역은 민족의 식이나 도덕성이 없는 기회주의자로, 좌파는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물들로 그렸다.

4, MBC의 밥그릇 지키기

MBC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제작거부와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상은 방개혁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이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방송을 장악한 세력들이 정권과 유착해 왔으며 지금도 반 MB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여실이 증명하고 있음이다. [출처]

14면에서 이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대화는 상대의 공감과 이해를 함께 하고 설득은 상대의 납득을 얻어 낼 수 있겠지만 토론의 경우는 달변에 쫓겨 상대를 인정한다고 해도 굴복당한 결과로 자리매김하게 되므로 감정의 찌꺼기가 남게 마련이다. 감정의 찌꺼기가 쌓인 곳은 갈등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다.

토론이 갈등을 부추긴 사례로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TV토론을 시청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고 억지 요설을 청산유수로 쏟아

내는 토론자의 얄밋고 뻔뻔함에 따귀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했다. 시청률을 높이려는 방송사의 생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 참여자들도 하나같이 흑이 아니면 백의 편이었다. 방송진행도 기가 막히게 흑백의 대결로 짜여진 경우가 많았다. 마치 개싸움이나 닭싸움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TV토론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가 양자 택일의 흑백논리와 모가 아니면 도라는 식의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곤 했었다.

지난 5월 15일(금)새벽 MBC의 100분 토론을 시청했다.

새벽 3시 40분까지 계속된 토론의 주제는 "보수와 진보 거리 좁히기"였다.

막말과 심한 싸움판을 연상하게 하는 주제였다. 여전히 억지 요설을 늘어놓는 말꾼도 있었고 상대를 헐뜯는 말들도 오가기는 했지만 토론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고 훨씬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송 토론은 그 자체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다. 토론 프로그램은 아예 없애버릴 의사는 없는지 방송사에

물고 싶었다. 다만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가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의 말과 이에 수긍하는 듯한 패널들의 표정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네 탓 때문이다"라고 고집하기보다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 나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그 래야 갈등이 작아지며 분열이 통합될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고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다운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원한다. [출처]

회우들이 펴낸 新刊

유한준 회우 〈시정산고 국화꽃 향기〉

고희(古稀)를 넘긴 다음해 〈국제문예〉 시조 시인에 응모하여 등단, 신인상을 받은 俞漢俊 회우가 그동안 틈틈이 써 온 시작 노트북에서 307수를 골라 〈시정산고 국화꽃 향기〉를 펴냈다.

「제 1부 마음의 노래」로 '밤하늘' '거울 속의 내 마음' 등 20제(題) 56수(首), 「제 2부 끝없는 여로」에 '강화 마니산' '지리산 정한(靜閑)' '백두산 정감(情感)' 등 20제(題) 55수를, 「제 3부 아름다운 세월」에 '사랑과 연민' '연가' 등 20제(題) 54수를, 「제 4부 추억의 단상」에 '멈춰 선 귀향 열차' '사모곡' '오! 자유여!' 등 20제(題) 61수를 실었다.

이어서 「제 5부 망각의 세월」에 '아상(我相)' '청춘' '기다림' 등 20제(題) 57수를, 그리고 「제 6부 나그네 발길」에는 해외 취재길에 올랐던 '알프스 산정' '영원한 로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등 10제(題) 21수를 담아 모두 110제(題) 307수(首)의 시조를 엮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 7부 시조서사(時調敘事)」에 '시조 문학의 새로운 인식' 논고(論考)를 통해 시조에 대한 시각, 시조의 기본 형태, 시조 문학의 본질, 정형시에 대한 편견, 시조 언어의 특성 등을 밀도있는 필치로 다루었다.

한국일보 기자(記者)로 언론계에 투신하여 조선일보로 옮겨 언론 외길을 걷다가 정년퇴직한 유 회우는 아동문학가로, 저술가로 창작활동을 즐기치게 계속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고희(古稀)를 넘기고도 프로다운 열정과 왕성한 필치를 구사해 왔다.

“탁월한 시재와 예리한 필치로 완숙한 수작(秀作)의 경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국제문예〉 발행인 배용과 시인은 평하고 있다.



李民熙 회우 〈특파원 리포트〉

KBS문화사업단 및 KBS미디어 사장을 역임한 李民熙 회우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취재현장보고서 '특파원 리포트'를 펴냈다.

1966년부터 40여년 동안 기자, 도쿄 특파원, 언론사 경영인, 언론학 교수 등을 거치면서 겪은 일들을 자전적으로 엮은 현장기록이다.

저자가 기자와 도쿄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특종을 발굴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를 촉구한 신문, 방송, 잡지 등과의 인터뷰, 좌담회, 특강 등의 전말과 내용을 실었다.

1966년 조선일보 교열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해 중앙일보, 동양방송 취재기자를 거쳐 KBS 도쿄특파원으로 활동한 이 회우는 취재 현장에서의 순발력과 대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부의 '경찰기자 25장' '정치부 취재 어떻게 하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과 2부의 '특파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통해 저자는 실질적인 '기자되기'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3, 4부에서는 저자가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한 때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다케시타 노보루 전 일본 자민당 총재 단독 인터뷰, 히로히토 전 일본 천황 서거 등 그가 일본에 체류하며 취재한 특종기를 실었다.

또한 2년 6개월간 방송 좌담회에 출연하며 일본 천황주의를 비판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를 촉구하는 등 해외 특파원으로서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회우는 현재 '사랑의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있다.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金泳三 대통령과의 인연

도쿄에서의 특파원 생활은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배달된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요미우리(讀賣),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도쿄신문(東京新聞) 등 일본을 대표하는 일간지를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침 10시쯤 아자부(麻布)에 있는 주일 대사관에는 빠짐없이 들러 기자실에서 잡담을 나누다가 金在權 공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점심을 먹고 有樂町(유라쿠초)에 있는 도쿄지사에 나타나는 것이 일과이다.

유신이 선포된 다음 날이었다. 그날 따라 좀 늦게 지사에 들어서니 일본인 여직원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다면서 책상 위의 메모지를 가리켰다.

9시 10분 뉴 오타니 호텔 金泳三
9시 40분 뉴 오타니 호텔 金泳三
10시 10분 뉴 오타니 호텔 金泳三
거의 30분마다 걸려온 전화가 10여통이었다. 일본인 답게 꼼꼼하게 적어놓았다. 미국 정계인사들을 만나고 일본에 머물다 벼락을 만난 것이다.

뉴 오타니 호텔로 전화하자 “우찌 그리 통화 하기가 어렵습니까?” 다급한 푸념이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 방에 들어서니 탁자 위에 빈 위스키병이 두 개나 넘어져 있고 그의 얼굴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말처럼 부스스했다.

오늘 아침에도 마누라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한국에 들어오면 죽을 테니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심정이었다.

나더러 서울에 가서 정확란 정보를 캐내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의 청을 물리칠 수도 없고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경남고 1회 그는 3회, 그러나 재학시절부터 교분이 있었다. 부산 피난시절 統營경찰서장이나 부탁하러 張澤相 국회의장을 찾아 가겠다는 말을 했다. 滄浪을 잘 아느냐고 했더니 서울 문리대 주최 전국대학생 웅변대회에서

3위를 한 것과 그의 준수한 용모가 마음에 들었던지 滄浪의 요청으로 그의 고향 경북 칠곡에서 국회의원 출마운동을 도왔다는 것이었다.

며칠뒤 경찰서장 아무나 하나 꾸지람을 들었고, 군생각 말고 내일부터 내방에서 비서로 근무하라는 당부로 그의 취직은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났다.

나는 국방부와 국회출입을 겸하고 있었다. 서로 죽이 맞아 매일 저녁 그와 술을 마시게 됐다. 그는 호주가, 나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게지는 주객과는 멀었지만 그와 어울려 새벽에야 귀가하는 악동이 돼버렸다. 그는 조흔을 했고 나는 아직 독신이었기에 孫命順 여사의 미움을 많이 샀다.

막상 서울에 와서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잘못하다가 도쿄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앙정보부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겁도 났다. 서울집도 팔고 도쿄가 생활의 터전이 됐으니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왕복 항공료, 체제비 모두 내가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용케도 서울체제 6일만에 정보부 정치담당 책임자 CHO와 선이 닿았다. CHO와는 국방부 출입 덕에 알고 지낸지 꽤 오래됐고 그의 인간성은 정보부 냄새가 나지 않는 신사였다.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종군기자

정보부의 요구조건은 간단 명료했다.

1. 외국에 있어도 좋다. 단 金大中和 단짝이 되어 반체제 운동은 하지마라.

2. 입국해도 좋다. 절대 구속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각서를 써라.

1주일 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도쿄로 돌아갔다. 뉴 오타니 호텔 그의 방에서 두가지 조건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절대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묘책은 없었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아내이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피곤하니 가야겠다고 호텔 방을 나섰다.

내 말을 더 믿었던지 金泳三은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서울행을 택했다. 金浦공항에서 정보부의 마중을 받고 南山에서 각서를 쓰고 上道洞 자택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기나긴 연금생활이 계속됐다.

긴 세월이 흐르고 盧泰愚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고 어렵게 3당 합당이 이루어졌고 金泳三, 金鍾泌, 李鍾贊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느냐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어느날 새벽 나는 차를 몰아 上道洞

으로 향했다. 그의 집앞 골목길에 서 있는데 새벽 ‘조깅’을 마치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이 골목길은 밤 늦게 귀가하는 그의 승용차를 가로 막은 청년 과한 두명이 저희끼리 싸움하는 척하다가 그의 뒷좌석 문을 열려고 덤볐다. 金泳三은 차를 타면 반드시 문을 LOCK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소주병 같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염산을 차창문으로 던지고는 달아났다. 과한은 두명, LOCK하는 습관이 그의 목숨을 지켰다. 다음날 국회본회의가 열리자 신상발언을 얻어 단상에 오른 그는 “민족의 반역자, 민주주의 원흉...”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초산세례를 받은 그의 승용차 사진과 초산이 들었던 빈병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국회는 발각 뒤집혔고, 도하 각 신문방송은 연일 이 초산세례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끝내 과한들의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1층 응접실에는 면담객들로 넘쳐났다. “정형 땀을 좀 씻어야 하니 한 20분만 기다려 주세요.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윽고 비서가 2층 접견실로 안내했다. 후보지명이 하도 궁금해서 돌아가는 정세를 물으니 절대 자신있다는 대답이었다.

궁금증도 풀렸고 일어서려는데 흰 봉투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이런 것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뿌리치려니 내 상의 호주머니에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이러시면 제가 민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현관까지 내려와서 비서에게 차까지 배웅해 드리라고 당부했다.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봉투를 건넸더니 은행수표 2백만원이 들어있다고 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그와의 만남은 이것이 끝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물러난 뒤에도 만나지 않았다. ㉞

溫故知新

만리장성은 「고무줄 장성」인가

한국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격하시키려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탈취기도가 집요하다. 고구려·발해사 왜곡도 모자라 이제는 고조선·부여사까지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동북아 고대文明 전체를 중국사의 일부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중국 국가문물국과 국가측량국은 지난 4월에 만리장성의 길이가 종전의 6,300km보다 훨씬 더 긴 8851.8km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 만리장성은 동쪽의 허베이성(河北省) 천황다오시(秦皇島市)의 산해관(山海關)에서 서쪽으로 간쑤성(甘肅省) 가옥관(嘉峪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이런 통설을 뒤집고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산해관이 아니라 압록강 하구인 라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 북쪽 호산(虎山)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허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지난 2004년에 단둥시 호산에 거대한 규모의 호산장성을 만들어 놓고 이를 '만리장성 동단기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호산산성은 고구려의 대 중국 방어거점의 하나인 박작성(泊灼城)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중국은 호산산성을 만리장성의 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산성을 증축하고,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고구려시대 박작성 유적을 대거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 어용학자들의 역사왜곡과 날조에 따라 제멋대로 늘어나는 만리장성은 고무줄 장성인가. 중국이 만리장성을 압록강 하구까지 연장하려는 저의는 결국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영토였던 요서·요동·만주가 모두 중국의 영토였고,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는 모두가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란 꾀변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라오닝성 주도로 '랴오허(遼河)문명설'을, 지린성(吉林省) 주도로 '창바이산(長白山)문명론'을

내세워 '중국 문명은 황허(黃河)문명뿐 아니라 요하 유역의 동북문명이 합쳐진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요하와 발해만 유역, 만주는 고조선 문명의 발상지요, 한국사의 요람이었다. 고조선에 이어 부여·고구려·발해가 차례로 일어난 우리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황원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中, 최근 丹東이 동쪽 기점이라고 주장 古朝鮮까지 中國역사 편입 왜곡 날조

중국이 황당무계한 역사왜곡과 날조를 자행하는 근본 원인은 중국사의 뿌리가 한국사보다도 짧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중국사의 시원(始原)은 황허문명설이 주류로 자리잡아 왔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부터 요하·발해만 유역에서 기원전 7000~1500년의 신석기·청동기 유적이 대거 발굴되었는데, 빗살무늬토기·비파형청동검 등 한국

섰다는 움직일 수 없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설'만 해도 그렇다. 고구려가 과연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던 지방정권이었을까. 고구려는 BC 37년 건국부터 668년 망국까지 28왕 705년을 유지했다. 그 동안 중국에는 후한부터 당까지 무려 33개 나라가 명멸했는데, 200년 이상 지

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오래 간 나라가 196년을 유지한 후한이요, 그 다음이 103년인 동진이다.

심지어는 '황제'가 1명 뿐인 동위나, 겨우 7년 만에 망한 후량 같은 하루살이 제국도 수두룩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했다는 삼국시대도 위·오·촉 3국의 임금이 모두 11명에 60년밖에 가지 못했다.

또 신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도 20대 290년을 이어갔을 뿐이다. 당나라에 앞서 중국을 재통일하고 4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정복하려다가 패한 수나라는 겨우 3대 38년 만에 망했다.

고구려가 '속국'으로 있던 705년 동안 중국에선 33개 나라의 흥망이 무상했으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본국'이 어찌 있단 말인가. 사실(史實)이 이러함에도 중국은 입만 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꾀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이 이처럼 역사왜곡·날조와 탈취에 집착하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는 듯하다. 중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 민족의 주류인 한족(漢族)의 역사는 별 볼일 없었기 때문이다. 한족이 세운 나라는 진과 한, 그리고 동진 이후 송과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국이 자기 땅에 있던 나라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라고 강변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중국사의 뿌리는 고조선이라고 당당히 주장하지 못할 것도 없다. 고조선의 발해만·요하문명이야 말로 황허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선 고대문명이 아닌가.

중국의 역사왜곡과 날조의 밑바닥에는 중화제국주의 부활과 역사 패권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되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계속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원문]

화양계곡 절경서 즐거운 하루

본회 산악회 상반기 산행마쳐

'협곡의 명승지' 화양구곡은 요즘 푸르게 우거진 숲과 명경지수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자연의 대향연을 펼치는 장이다.

본회 산악회는 지난 5월 26일 이곳에서 올해 상반기 회우 단합 산행을 했다. 산행에는 김재영, 송두빈, 최의호 원로회우를 비롯, 34명 산우들이 참석했으며 산행 뒤엔 근처 음식점에서 점심 겸 흥겨운 주석 자리를 마련, 하루를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종우, 정운종, 최의호 회우가 협찬, 즐거운 산행과 우정을 다지며 5월산행을 마쳤다.



화양계곡 입구에서의 기념촬영.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사실-의견보도 원칙’ 세미나



★ 고훈용(한국 언론 재단 이사장)회우 = 5월 14~15일 한국 신문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주 KAL호텔에서 윤리위원과 중앙 일간지 편집국장 등을 초청해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 보도 원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어 15~16일에는 충청·호남·제주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역 언론의 생존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 특강

★ 김 현(문화산책 청류회 회장)회우 = 5월 12~13일 광주 가톨릭대학교



‘언론의 자유와 책임’ 토론회



★ 남시욱(광화문 문화포럼 대표)회우 = 5월 29일 오후 2시 공정방송발전연구회가 주최하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남회우는 또 5월 13일 오전 7시 30분

대학원에서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과 ‘해외 여행과 성직자의 예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구자흥 명동 예술극장장을 초청해 ‘명동예술극장 재개관의 문화사적 의의’란 주제의 강연회를 열고 토론회를 가졌다.

‘사실 보도 원칙’ 세미나 사회



★ 성병욱(한국 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 위원)회우 = 5월 14~15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공동 주최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주제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다

‘이정식과 친구들’ 콘서트



★ 이정식(기독교 방송 사장)회우 = 21일 오후 7시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 씨 어터에서 CBS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이정식과 친구들’ 콘서트를 열었다.

6·25 참전 필리핀 용사 추념비 제막



★ 지갑종(유엔 한국 참전국협회 회장)회우 = 한국과 필리핀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아 6·25 참전 중에 전사한 137명의 필리핀 용사를 위한 추념비 건립을 지원하고 5월 27일 오전 부산 UN 기념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안토니오 C 산토스 필리핀 국방차관과 37명의 생존 참전용사, 30명의 청소년이 방한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 양 국가보훈처 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은평구청 ‘장한 아버지’ 표창



★ 황대연 회우 =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 참된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등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고 5월 8일 아버지를 맞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장한 아버지’로 표창을 받았다.



5월 건강강좌에 많은 회우들이 참석했다.

‘건강포럼’ 참석 회우 갈수록 늘어

5월 모임 성황... 6월13일 장우성박사 강연

대한언론인회와 한국 성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6월 건강포럼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있는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이달 건강포럼의 연사는 장우성 약학박사로 강연주제는 ‘장수와 효소’다.

장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생명활동은 효소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현대인들에게, 특히 노년기에 이렇게 귀중한 효소가 많이 결핍돼 있어 체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효소를 섭취해 건강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 박사는 현재 대한약사회 이사와 서울시약사회약사발전연구소장,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호전약품주식회사 대표로 있다. 특히 이날 강연에 참석한 회우들에게는 장우성 박사의 저서인 <여성들이여 건강의 중심에 서라>는 신간서적과 효소 시공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건강포럼에서 연사로 나온 전립선 전문의인 조성완 박사는 “최근 국내에서는 남성 노인들이 급증하고 최신 진단장비의 도입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전립선 암’으로 새로 진단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립선암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해마다 진단을 받는 등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특히 전립선암은 우리 나라에서도 5대 암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해도 지난 97년에 38만명이 새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됐고, 41,800명이 사망해 폐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악성 종양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회우들에게는 이윤수 원장이 노년기에 좋은 안약 4통씩을 증정했고 강연이 끝난 후 회우들은 생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비오는 토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냈다.

조성국 회우 본회에 컴퓨터 기증

趙誠國 회우는 5월 26일 고 李命英 회우의 따님 李智妍 박사(한국직업개발능력원)와 함께 용량 2기가의 PC(20인치 모니터, 스피커, 복합인쇄기 등 포함) 1대를 본회에 기증했다.

본회 PC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성국 회우가 이지연 박사와 분담해 최신형 PC를 구입, 기증하게 됐다.



조성국 회우.



이지연 박사.

회우 경조사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이정운 회우 = 5월 16일 오후 3시반 양재동 L타워에서 아들 결혼
- ★ 황봉구 회우 = 5월 23일 오후 7시 청담동 오픈리스에서 장녀 하은양 결혼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김 화 회우 모친상 = 5월 11일 오전 모친 별세. 빈소 강북삼성병원 영안실. 발인 5월 13일 오전 6시

주 소 변 경

- ★ 임병학 회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통빌리지 105-103 우) 446-908
- ★ 오정수 회우 = 서울 미포구 성산동 667번지 월드컵 I-PARK 1차아파트 104-104 우) 121-849

e-mail 주 소

- ★ 박영식 회우=antonio2033@hanmail.net

전 화 번 호 변 경

- ★ 고덕환 회우 = 010-9596-2515 e-mail주소 : deukhko@hanmail.net
- ★ 윤병찬 회우 = 010-7744-4250

회 비 납 부 (5월 중)

국기일, 김경철, 김영진, 김영택, 김형태, 남선현, 박준구, 정만호, 정일화, 이상우, 천승준, 현원복

It's Beautiful

Make a ColorFULL City

금호건설의 LED갤러리 빌딩엔 365일 날마다 다른 표정이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LED갤러리로 세상은 점점 다채로워집니다.

건설은 패션이다! 금호건설



|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 LED갤러리

www.gg.go.kr

자녀들의 방과 후 교육- 경기도에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정기능을 갖춘 꿈나무 안심학교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집엔 잘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자녀들의 학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걱정은 시작됐었죠?
이제, 걱정마세요. 경기도엔 자녀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방과 후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의 학교 내 보육시설을 조성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쉼터를 운영하여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